

넥센타이어, 유럽시장 공략 본격화

체코 자테츠에 1조2000억원 투입해 공장 건설 ... 2018년 가동 예정

넥센타이어(대표 이현봉)가 체코에 1조2000억원을 투자해 타이어 공장을 건설한다.

넥센타이어 강병중 회장과 보후슬라프 소보트카 체코 총리는 6월25일(현지시간) 체코 자테츠(Zatec) 소재 65만㎡ 부지에 타이어 공장을 건설한다는 내용의 투자 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대로 착공해 2018년에 가동할 예정이다.

자테츠 공장에서는 1200만개 이상의 타이어를 생산해 인근의 현대·기아자동차의 현지 공장을 비롯해 Volkswagen과 Sukoda 등에 추가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보트카 총리는 “넥센타이어 공장이 가동하면 수천 개의 일자리가 생겨 최고 60만명에 달했던 실업자 수를 줄일 수 있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체코가 주변 국가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준 넥센타이어에게 감사한다”고 강조했다.

강병중 회장은 “공장입지를 놓고 6개국 50곳을 비교·검토한 결과 시장 성장가능성이 높은 체코로 확정했다”며 “체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앞으로도 이어져 상호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넥센타이어는 우성타이어를 모태로 2000년에 사명을 바꾸었고 2013년 1조7282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경남 양산, 창녕 등 국내 2곳과 중국 청도에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넥센타이어는 체코 자테츠 공장을 포함하면 생산거점이 총 4곳으로 늘어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4/06/26>